국어
4-2

6. 상상의 날개

<국어> 252~287쪽 / <국어활동> 82~99쪽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2)

(가)

(나)

1 이 그림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 )

①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연못에 빠졌다.
② 배고픈 개구리 눈앞에 파리가 나타났다.
③ 연못에 많은 개구리들이 모여 앉아 있다.
④ 개구리가 배고픈 파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⑤ 연못의 물이 말라 개구리가 살 곳이 없어졌다.

2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수정: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었을 것 같아.
은하: 외로웠던 개구리가 파리와 친구가 되었을 것 같아.
재혁: 개구리가 연못에 빠진 파리를 구해 주었을 것 같아.

( )

※ 다음 그림과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3~6)

(가) 올해 봄 우리 반 친구들은 옥상에 있는 텃밭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함께 심었습니다.

봄에 심었던 방울토마토 모종은 무럭무럭 자랐고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

(나) 그런데 어느 여름날 옥상 텃밭에서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기르던 방울토마토 열매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던 우리 반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 (가)와 (나)에서 일이 일어난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글에서 찾아 쓰시오.

(1) → (2)

4 (가)에서 친구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 )

① 방울토마토 열매를 땄다.
② 학교 화단에 꽃을 심었다.
③ 옥상 쉼터에서 운동을 하였다.
④ 과학 시간에 콩을 심고 관찰하였다.
⑤ 옥상 텃밭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다.

5 친구들을 놀라게 만든 일은 무엇인지 쓰시오.

_____

_____

6 **5**에서 답한 일 뒤에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하영: 방울토마토를 지키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웠을 거야.
동민: 친구들이 방울토마토가 다시 잘 자라라고 거름을 주었을 거야.
종훈: 친구들이 뿌듯해하며 남은 방울토마토 열매를 따서 나누어 먹었을 거야.

(　　)

※ 다음 장면과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가)

(나) **어제 오후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

얼룩말이 서울 도심 주택가를 돌아다닌 사건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배달 기사가 얼룩말과 정면에서 마주친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얼룩말을 둘러싸고 안전 난간을 설치한 뒤 마취총을 쏘아 탈출 3시간 3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7 얼룩말이 나타난 장소는 어디인지 쓰시오.

(　　)

8 아저씨가 놀란 표정을 지은 까닭은 무엇일지 쓰시오.

_____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11)

어느 날 밤, 방 씨 규수의 아버지 방진의 재산을 탐낸 도둑들이 떼를 지어 집 안마당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도둑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자 방진은 서둘러 화살을 찾았습니다. 방진은 백발백중의 활쏘기 솜씨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방진은 활을 쏘면서 도둑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살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둑들이 방진의 활쏘기 솜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미리 방진의 하인에게 손을 써서 대부분의 화살을 훔쳐서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는 남은 화살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는 방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화살, 화살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던 화살이 어디 있느냔 말이다!"

그때 방 씨 규수의 방문이 열리면서 방 씨 규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화살이 있습니다."

방 씨 규수는 베 짜는 데 쓰던 대나무를 한 아름 대청마루 위에 내던졌습니다. '우두두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화살이 쏟아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얼른 눈치를 챈 방진이 외쳤습니다.

"그래, 화살이 거기에 있었구나. 네 이놈들, 내 화살 맛을 보고 싶으냐!"

방진의 말에 깜짝 놀란 도둑들이 의아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그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9 활쏘기 솜씨가 뛰어난 인물은 누구인지 쓰시오.

(　　)

10 방 씨 규수의 성격을 알맞게 파악하지 <u>**않은**</u>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영민: 위기에 빠진 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을 보면 잘난 척하는 성격인 것 같아.
민호: 도둑 떼가 쳐들어온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침착한 성격인 것 같아.
주은: 화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대나무를 한 아름 던진 것을 보면 지혜로운 성격임을 알 수 있어.

(　　)

11 다음 일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쓰시오.

> 방 씨 규수가 대나무를 한 아름 화살인 척하며 대청마루 위에 내던졌다.

_____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16)

(가) 그런데 길게 자란 풀 뒤에서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험한 표정으로 실베스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실베스터는 자지러질 듯 놀랐지요. 그렇게 놀라지만 않았어도 실베스터는 사자를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엄마와 아빠가 있는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테지요.

사자를 나비로 변하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데이지꽃이나 모기로 변하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테고요. 정말이지,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실베스터는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고 말았지요.

㉠"내, 내가 바, 바, 바위면 좋겠어."

(나) 그러자 실베스터는 곧바로 바위가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사자가 훌쩍 뛰어나오더니 바위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킁킁, 킁킁. 사자는 바위 둘레를 빙빙 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거참 이상하네, 어린 당나귀 녀석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바위가 된 실베스터는 딸기 언덕에서 꼼짝도 못 했어요. 요술 조약돌은 코앞에 놓여 있었지만 손이 없으니 집을 수가 없었지요.

'아, 다시 당나귀로 돌아가고 싶어.'

실베스터는 간절히 빌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술은 돌이 몸에 닿아야 일어나는데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12 실베스터가 ㉠의 소원을 빈 뒤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 ( )

① 사자가 바위로 변했다.
②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사자가 깜짝 놀라 도망을 갔다.
④ 실베스터가 정말로 바위가 되었다.
⑤ 사자에게 요술 조약돌을 빼앗겼다.

13 사자가 돌아간 뒤 실베스터가 간절히 빈 소원은 무엇입니까? ····· ( )

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②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③ 자신도 사자가 되고 싶다.
④ 요술 조약돌이 되고 싶다.
⑤ 다시 당나귀로 돌아가고 싶다.

14 이 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실베스터의 성격을 알맞게 설명하지 **않은**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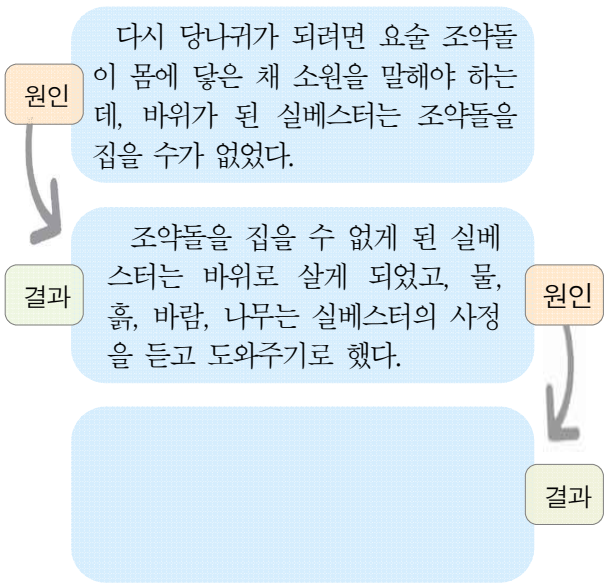
> 영하: 여러 가지 소원을 계속 말하는 것을 보면 욕심이 많고 변덕이 심한 성격인 것 같아.
> 수민: 사자를 보고 급한 마음에 엉뚱한 소원을 말한 것을 보면 쉽게 당황하는 성격인 것 같아.
> 은별: 자신을 노려보고 있던 사자를 보고 자지러질 듯 놀란 것을 보면 겁이 많은 성격인 것 같아.

( )

15 (나)에서 짐작할 수 있는 실베스터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 ( )

① 사자가 부러운 마음
② 요술 조약돌에게 고마운 마음
③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마음
④ 사자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
⑤ 사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

16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20)

(가) [앞 이야기] 지구별 한국에 새달이와 동생 마달이가 살고 있었다. 새달이는 어느 날 숙제를 안 해서 학교에서 벌을 서게 된다. 그날 밤, 새달이는 잠을 자다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새달이를 부른 것은 랑랑별에 사는 때때롱이었다. 때때롱은 '지구별에서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를 찾아라.'라는 숙제를 하기 위해 새달이를 찾은 것이었다. 그 뒤 며칠 동안 새달이와 마달이는 때때롱, 때때롱의 동생 매매롱과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 있던 커다란 호박 하나가 사라진다.

(나) 며칠 뒤였습니다.

엄마가 돌담 위 호박 넝쿨을 살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호박이 없어졌어요!"

"뭐야?"

닭장 안에 모이 그릇을 넣고 있던 아빠가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있던 호박 누가 땄나요?"

"그건 씨호박 하려던 거잖소?"

아빠도 호박이 없어진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달아, 마달아, 너희도 호박 없어진 것 모르니?"

"몰라요."

"몰라요."

새달이와 마달이는 강아지 흰둥이한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에구, 아까워라. 누가 탐이 나서 훔쳐 갔나 보다."

엄마는 ㉠혀를 끌끌 차면서 몹시 서운한 눈치였습니다.

17 새달이가 학교에서 벌을 서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

① 지각을 해서
② 숙제를 안 해서
③ 친구를 괴롭혀서
④ 교실에서 뛰어다녀서
⑤ 선생님께 거짓말을 해서

18 때때롱이 해야 하는 숙제는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_____ 에서 (2) _____ 을/를 하지 않은 아이를 찾아라.

19 (나)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두 명** 고르시오. ····· (,)

① 새달이
② 마달이
③ 때때롱
④ 매매롱
⑤ 새달이네 아빠

20 ㉠은 언제 사용하는 낱말인지 알맞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 마음이 언짢거나 불만스러움을 나타낼 때 ㉰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 할 때

( )